

다날, “특허권 분쟁 적극 대처할 것”

최근의 벨소리와 휴대폰 결제 분야에서 특허권 분쟁에 휩싸인 다날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입장을 밝혔다.

박성찬 다날 사장은 “상호협의를 아래 진행되어 온 사업내용을 가지고 다날의 코스닥 진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자제해 온 자사의 특허권 활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날은 최근 코스닥 등록업체인 야호커뮤니케이션(대표 이기돈)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바 있다. 야호커뮤니케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음성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휴대전화기 벨소리 선택방법 특허권’에 대해 다날에게 3억원의 특허권 침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휴대폰 결제 업체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도 SMS방식의 휴대폰 결제 분야 특허에 대해 재산권 행사 의지를 다날에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다날측은 “벨소리와 관련된 특허인 다운로드기능을 갖춘 전화단말시스템 (특허등록번호 10-0262701)과 실용신안 벨소리 다운로드를 위한 휴대용 단말기 모델확인장치 (실용신안 등록번호 20-0194988) 등을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날은 창립 5주년 맞아 새로운 CI(기업 이미지 통합)를 발표하기도 했다.

새로운 CI는 ‘다가오는 날’, ‘다음날’의 의미를 지닌 순 한글 사명에 맞춰, IT업계에서는 드물게 한글로 제작됐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정보통신업계에서도 앞서가는 기업이미지를 위해 스피디한 디자인이 사용됐다.

출처 INEWS24

“넉보지아” 휴대전화 ‘특허전쟁’

1996년 혁신적인 디자인의 신제품 휴대전화기 개발을 마친 미국 모토로라는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을 제품 발표 무대로 잡았다.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할 야심작을 선보이는 만큼 홍보효과도 커야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제품발표회 전통을 처음 연 모토로라의 제품이 ‘스타택’. 바로 세계 최초의 폴더형 단말기였다.

스타택은 영화 ‘스타트렉’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세계 각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와이셔츠 주머니에도 휴대할 수 있는 검은색 스타택은 당시 부(富)와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모토로라는 스타택 개발 과정에서 폴더방식 디자인에 대한 국제특허를 확보,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스타택의 성공은 폴더형 단말기 열풍으로 이어졌다.

휴대전화기가 첨단정보시대의 가장 대중적인 정보기기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음성통화 도구였던 휴대전화기가 인터넷과 컴퓨터 기능까지 갖춘 다기능 휴대용 정보기기로 ‘진화’ 하면서 각종 특허가 쏟아지고 있다.

특허권 소유 여부에 따라 제품의 경쟁력이 좌우되고 기업의 미래가치도 달라지면서 특허권 분쟁도 늘고 있다.

특허청 오상균 심사관은 “휴대전화 관련 특허는 국내에서만 한 해에 수백가지씩 새로 늘고 있다”며 “휴대전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고유기능이나 디자인과 관련된 것은 줄고 무선인터넷이

나 휴대전화 결제 등 새로운 용도와 관련된 것이 많다”고 밝혔다.

▽ 휴대전화 특허 어떤 게 있나 = 88년 세계 최초로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기 ‘택 8000’을 개발한 모토로라는 플립방식 단말기 특허도 가지고 있다.

이 회사가 92년 내놓은 ‘마이크로택Ⅱ’는 덮개를 여닫는 플립형 디자인으로 휴대전화 대중화시대를 열었다.

최근에는 폴더 및 슬라이드 방식 단말기의 대안으로 덮개를 위로 돌려 여는 ‘로테이션’ 방식의 신제품 ‘V.70’도 내놓았다.

휴대전화 자판에도 갖가지 특허가 얽혀있다.

삼성전자는 ‘.’, ‘-’, ‘.’의 세 가지 키로 모음을 입력하는 ‘천지인(天地人)’ 방식 한글자판 특허를 보유해 자사(自社)의 모든 제품에 쓰고 있다.

LG전자는 벤처기업 언어과학이 특허를 낸 ‘나랏글’ 방식 자판을 쓰고 있다.

원만한 폴더 단말기의 외부 덮개에 달려있는 ‘듀얼 창’에 대한 특허는 KTF가 냈다.

KTF는 98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국내 최초의 듀얼폴더 단말기에서 이를 고안해 2000년 9월 특허등록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안테나의 굵고 둥근 몽치와 얇은 막대를 분리, 막대안테나만 뽑아 쓰는 방식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

이 방식은 굵은 몽치가 막대안테나 끝에 달려 있는 과거 방식보다 수신감이 좋고 편리해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삼성전자 지적재산팀 고간석 과장은 “단말기 주소록의 전화번호를 윈터치방식으로 거는 단축 다이얼도 삼성전자가 89년 국내에서 특허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퀄컴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원천기술 특허를 발판으로 무명의 벤처기업에서 세계적인 통신업체의 반열에 올랐다.

한국은 92년 CDMA를 국가표준으로 정하고 상용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퀄컴의 초고속 성장을 가능케 했다.

▽늘어나는 휴대전화 특허 분쟁 = ‘천지인’ 재판 특허는 발명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며 1000억원대의 소송을 내 법정 분쟁에 휘말려 있다.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 2명이 회사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가로채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낸 것.

이들은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팔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가져본 신청도 했으나 법원은 최근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때 단말기 사업을 벌였던 미국 퀄컴은 97년 스타택 디자인을 도용한 혐의로 모토로라와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퀄컴의 CDMA 로열티 분쟁도 대표적 사례.

CDMA 상용화 기술 개발에 참여한 ETRI는 국내 업체로부터 받는 기술료의 20%를 주기로 했던 퀄컴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내 지난 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ETRI는 퀄컴으로부터 1억25만5530달러의 기술료 분배금을 돌려 받았으며 2008년까지 총 1억2000만달러를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료는 얼마나, 어떻게 주고받나=기업들이 특허권 사용료를 주고받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매출에 따라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받는 러닝로열티, 한꺼번에 내는 럼섬(lumpsum), 상호 보유한 특허의 사용권리를 주고받는 크로스라이선스

등이다.

퀄컴은 CDMA 특허에 러닝로열티 방식을 적용해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내수용은 5.25%, 수출용 5.75%의 기술료(매출액 기준)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일괄 삼성전자의 '천지인' 자판에 맞서 '나랏글' 자판을 도입하면서 10억원을 주고 럽섬 방식으로 사용권을 사들였다.

KTF는 삼성전자에 듀얼 창 사용권을 주는 대신 삼성전자의 천지인 자판을 쓰는 크로스라이선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간 특허권 사용계약은 기업마다 방식과 내용이 달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

저스티스법률사무소의 김준호 기술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분야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허권 보유 기업이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많은 특허가 사용료 없이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게임업체 법무팀 "특허·저작권분쟁으로 바빠요"

요즘 게임업체 법무팀들이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게임업체는 만화캐릭터를 비롯해 기존 문화콘텐츠를 재생산하는 사례가 많아 이와 관련한 저작권·특허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온라인게임 등급사전심의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이 제도의 위헌 여부나 구속력 등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PL)법도 온라인게임업체에 적용될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에서 제기되면서 이를 검토하는 법무팀의 손길이 부산하다.

온라인게임업체 CCR(www.ccr.co.kr 대표 윤석호)는 최근 경영지원부서에 속해 있던 법무팀을 독자 부서로 떼어냈다.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이 틈틈이 해오던 법무팀 업무도 전담 직원을 3명으로 늘리며 조직을 강화했다.

지난해 '포트리스'의 저작권을 두고 PC통신업체 넷츠고와 진통을 겪었던 CCR는 계약서 작성에서 저작권·영업권 등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용화 CCR 팀장은 "게임업체는 소수의 개발자가 모여 창업을 하다보니 법적인 지식은 전무한 상태"라며 "최근 법적 분쟁이 많아지면서 대형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전담 법무팀을 조직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www.ncsoft.co.kr 대표 김택진)도 지난해 하반기 법무팀을 구성하고 게임중독·아이템 판매 등 사용자와의 법적 분쟁을 전담하고 있다. 외부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는 김&장, 태평양 등 전문 법무법인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PL법 등 각종 법안의 시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용산의 유통업체 비엔티와 스타크래프트 등 PC게임 병행 수입 문제로법정 소송을 경험한 PC게임 유통업체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의 더테트리스컴퍼니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진 '테트리스'의 온라인게임 서비스도 인터넷상의 저작권 여부를놓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NHN, 넷마블, 엠게임 등 테트리스를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는 업체만도 20여 개에 달해 게임업체에서는 때아닌 '법전 공부'가 한창이다.

출처 매일경제

스위스 특허당국, '빈라딘' 상표권 허가 취소

스위스 특허당국은 오사마 빈 라덴의 이복형제인 예술가 빈 라덴이 9.11 테러사건 이전에 취득한 의류상표 '빈라딘(Binladin)'의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스위스연방 지적재산권 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의 여파를 감안할 때 의류상표에 가족명을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인 위화감을 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상표등록 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빈 라덴은 스위스 동부의 추크 칸톤(州)에 소재한 자신 소유의 팔콘 스포츠 용품회사를 통해 지난해 2월 보석류 및 의류, 스포츠웨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며 9.11 테러사건 발생 한달전에 스위스 특허당국으로부터 상표권 사용허가를 취득했다.

빈 라덴은 빈 라덴이 9.11 테러사건을 주도한 배후인물로 지목되고 상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1월 "현시점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빈라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물지각한 처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빈 라덴은 그러나 "(빈라딘의) 이름이 제3자에 의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돼서도 안된다는 것이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상표권 자체는 유지

하겠다고 뜻을 시사했다.

스위스 특허당국은 '빈라딘' 상표권 논란이 표면화되자 연초부터 상표권 허가취소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지재권 연구소의 상표권 담당자인 에릭 마이어는 빈 라덴이 오는 8월15일까지상표권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제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만장자인 빈 라덴은 지난 85년부터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네바칸톤에서 시민권을 획득했다.

출처 연합뉴스

대우 해외상표권 협상 곧 타결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자동차가 협상 중인 대우차의 '대우(DAEWOO)' 브랜드 해외 사용가격이 100억원 아래서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협상팀의 한 관계자는 "대우차와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양사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자들이 최근 수차례 만나 100억원 이하에서 타협점을 거의 찾은 상황"이라며 "빠르면 다음주에는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우인터내셔널이 그동안 해외 상표권의 유지·관리를 위해 쓴 비용만 주겠다는 대우차 입장과 브랜드의 매각대금을 달라는 인터내셔널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우차 측은 과거 '대우' 그룹 시절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쓴 곳은 주로 전자와 대우차로 해외 상표권의 유지·관리비로 12억원 정도만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인터내셔널측은 해외 브랜드 사용권을 완전히 넘기는 조건으로 과거 매출액에 0.5%를 곱한 2,500억원을 요구해오다 최근에는 최소 400억원은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우차의 미국 제너럴모터스(GM)로의 매각도 무산되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낀 금융감독원과 양사 채권단이 적극 개입하면서 협상이 급류를 타게 됐다.

인터내셔널측도 브랜드를 싼 값에 넘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 경영진에 대한 주주 및 채권자의 책임추궁 등을 우려했으나 최근 법률기관의 자문결과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서울경제

M플러스스택·넥센, 다음에 수신확인 특허침해 경고장 발송

e메일 수신확인 특허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넥센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M플러스스택이 국내 1위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에게 지난 6월 8일 경고장을 발송,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M플러스스택의 관계자는 지난 2000년 8월에 특허등록을 한 후 2002년 2월 특허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 특허권을 완전히 취득한 상태라며 특허권 행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음에 청구할 특허사용금액은 약 6억원 정도에 이르며 이는 소송비용을 제외한 순수 특허권 사용에 관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수신확인 특허의 등록은 이미 2000년 8월에 마친 상태이고, 올해 2월에 특허 등록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도 종료됨으로 넥센은 특허권을 완전히 획득한 상태.

M플러스스택은 현재 다음, 드림위즈, 한미르, 깨비메일, 코리아닷컴, 라이코스, 인티즌 외 다수의 국내 e메일 서비스 업체 및 포털 사이트에서 수신확인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e메일 마케팅을 위한 솔루션 판매업체인 3R소프트, 아이마스, 에이메일 등에서도 동일하게 수신확인 특허 기술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넥센은 수신확인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국내 6개사(3R소프트, 드림위즈, 나라비전, 인포웹, 네오퀘스트, 아이마스, 에이메일)에게 2000년 10월 1차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는 못하고 올해 들어서는 국내 이메일 1위 업체인 다음(한메일)에서까지 수신확인 특허를 침해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 수신확인 기능은 현재 국내의 거의 모든 e메일을 통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필수적인 기술로 900억 규모에 이르는 국내 e메일 시장에서 막대한 특허 사업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수신확인 기능을 이미 많은 e메일 관련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서비스하는 곳이 없어 해외진출 전망도 밝다.

최근 중국의 포털사인 S사와 MOU를 체결하고 수신확인 사용에 대한 특허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특허 사업에 대한 수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해외 출원 부분도 이미 중국과 미국, 일본 등에 출원을 마친 상태라는데 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M플러스스택과 넥센이 수신확인에 대한 특허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국내의 거의 대부분의 e메일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시장성 및 수익도 최소 40억~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M플러스스택 관계자는 “특허를 보호해야 할 정통부 등이 특허를 도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좌시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넥센과 공동으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며 우선 7월에 3개 업체를 선별해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eWEEK

이머신즈, HP상대 특허권 소송 패소

국내 PC생산업체인 삼보컴퓨터[14900]의 관계사인 미국 이머신즈가 최근 휴렛팩커드(HP)와의 특허권 관련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인 피시 앤 니브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방법원은 이달 초 이머신즈가 최근 HP사에 인수된 컴팩컴퓨터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9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측은 또 이번 판결로 이머신즈에 대해 9개 특허권 가운데 2개를 영원히 이용할 수 없다는 금지명령을 내림으로써 해당기술을 제품에서 제거하거나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소송으로 인한 민사피해 산정과 나머지 7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여부는 오는 10월에 다시 재판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99년 컴팩이 이머신즈에 대해 자사가 개발한 PC보안 및 시스템속도 향상기술 등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현지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피시 앤 니브의 로버트 골드먼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며 “문제가 된 특허권이 법원에 의해 인정됨으로써 컴팩은 물론 HP로서도 지금까지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JPEG 파일에 특허권 부여 논란

미국의 한 기업이 JPEG 이미지 파일 형식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C넷이 보도했다.

화상 회의 시스템 개발업체로 알려진 미국 텍사스주의 포전트 네트워크(Forgent Networks)가 7월부터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JPEG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JPEG 파일 소스가 포전트 네트워크에 의해 개발됐으며 자신들이 특허권을 지니고 있는 만큼 JPEG 파일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자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포전트 네트워크의 주장이다.

포전트 네트워크 이미 소니 외에 1개 일본기업이 자사와 JPEG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전트 네트워크의 주장에 대해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위원회와 대다수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어 포전트 네트워크의 주장이 관철될 지는 의문.

일부에서는 MPEG 파일에 이어 JPEG 파일도 특허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출처 inews24

가전업체 '한국베끼기' 위험수위.. LG,삼성등 '정면대응'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가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업체들의 “베끼기”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전자레인지 중국시장 점유율 1위업체인 갈란츠사에 자사 기술을 도용한데 대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갈란츠는 세계 4위권의 전자레인지 생산업체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 가전업체다.

지난해 1백80만대에 이어 올해 3백만대로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등 공격경영으로세계 시장의 판도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LG전자는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센서기술을 갈란츠사가 무단도용한 단서를 확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또 중국 가전업체 S사가 “휘센” 스탠드형 에어컨의 기술과 디자인을모방한 제품을 출시중인 사실을 적발, 경고장 발송과 함께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LG는 S사의 제품을 구입, 분석한 결과 전면 디스플레이로 처리한 디자인을 모방하고 3면 입체 냉각방식 등 기술적 부분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유명 전자업체에 대해 제제방안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사 도용사례를 막기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휴대폰 “애니콜”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중

국업체가 삼성전자 브랜드로 휴대폰 배터리를 제작, 유럽시장에 수출까지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해외시장에 수출하지 않고 있는 데스크탑 PC도 삼성로고가 붙혀진 채 현지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미 자체 생산을 중단한 선풍기 가습기 무선전화기 등도 삼성 브랜드로 버젓이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삼성측은 파악하고 있다.

삼성 중국본사 관계자는 “핸드폰 액세서리와 키보드 마우스 등과 같은 주변기기에도 삼성 브랜드가 부착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전문컨설팅업체를 선정, 시장조사 및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IP(지적재산권) 총괄그룹의 이인정 부장은 “그동안 중국시장 확보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삼가해왔지만 중국의 해외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돼 정면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대우車 상표권 사용대가로 인터내셔널에 350억 지불

대우자동차와 대우인터내셔널간의 “대우(DAE-WOO)”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사실상 타결됐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양사는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이 소유하고 있는 “대우” 브랜드의 해외 사용권을 대우자동차가 3백50억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최종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대우자동차는 대우인터내셔널에 현금으로 20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 3백30억원 가량은 정리채권으로 흡수키로 했다.

3백30억원의 정리채권 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3억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어서 대우 브랜드의 실제 거래가격은 22억~23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출범예정인 "GM대우 오토 앤드 테크놀로지"는 해외 시장에서 대우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당초 브랜드 형성과정에 투입된 막대한 자금 등을 이유로 브랜드 사용료로 2천5백41억원을 요구했고, 대우자동차측은 10억 원대면 충분하다며 맞서왔다.

양사의 채권단과 금융감독원 등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GM)가 상표권 문제 해결을 대우자동차 인수의 전제조건중 하나로 내걸었다는 점을 감안, 중재에 나서 이같은 협상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경제

까지 부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더레지스터가 전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30개 레지스트라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리사인에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리사인은 WLS를 현재 성행되고 있는 소매나 레지스트 수준이 아니라 도매, 레지스트리 수준에서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WLS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든 레지스트라들은 베리사인에 자신들이 등록유치하는 WLS 당 35달러의 도매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출처 inews24

ICANN, "베리사인 기한만료 도메인 서비스 안돼?"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기한 만료된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베리사인의 제안을 거부했다.

더레지스터에 따르면 ICANN의 도메인 위원회는 ICANN 이사회 측에 베리사인의 웨이팅 리스트 서비스(WLS) 제안을 거부할 것을 권고하는 안전을 6대1로 통과시켰다.

ICANN 이사회는 10월 이전에 베리사인과의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ICANN 이사회가 도메인 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리사인에 WLS 서비스

국순당, 백세주 상표분쟁

(주)국순당이 주류 제조·판매업체인 (주)백세주를 상대로 "회사 고유상표인 '백세주'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상호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순당은 신청서에서 "(주)백세주가 회사 이름 뿐 아니라 제조·판매하는 주류에도 국순당의 고유상표인 '백세주'를 사용, 부정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백세주'란 상호 및 상표의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국순당은 또 "92년부터 판매된 백세주는 올해 들어서만 36억원의 광고비가 지출됐고, 대부분의 식당, 주점 등에 널리 알려진 국순당의 고유상표"라고 덧붙였다.

출처 머니투데이

EPG 특허 논란

전자적 프로그램 가이드(EPG; Electronic Program Guide) 서비스 특허권을 둘러싼 업체간 시비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미국 트리뷴 미디어 서비스사(Tribune Media Services, TMS)와 저작권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EPG 솔루션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가이드 채널(대표 신기현)은 5일 “EPG 서비스에 대한 국내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최근 발표한 EPG사(대표 서조황)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신기현 사장은 “국내 특허법상 이미 외국에서 특허를 받은 경우 국내 특허는 무효가 되는데 EPG의 특허권을 살펴본 결과 미국 트리뷴사가 보유한 특허와 그 내용이 매우 흡사했다”며 “이번 주중으로 트리뷴과 특허권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이드채널은 현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양사의 특허 내용을 검토 중이다.

가이드채널은 지난해 10월 미국 TMS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국내에 EP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3개 케이블TV방송국(SO)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채널은 23개 SO에 제공중인 서비스 표출방식에 대한 저작권 등록과 새로운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반면 EPG(주)는 지난해 11월 EPG 제작과 송출 방식을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 편성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신청, 특허를 취득했다.

EPG사는 이를 기반으로 현재 씨엔앰커뮤니케이션과 큐릭스네트웍스, 드림씨티방송 등 14개 SO에 EP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PG사의 특허 내용은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특성에 맞춰 제작된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각 SO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EPG 메인 서버와 개별 SO에 설치된 EPG 스테이션과의 데이터처리 및 전송방법 등을 정의하고 있다.

EPG(주)의 최기철이사는 “지난해말 특허 신청 전에 사전조사를 통해 가이드채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특허는 EPG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해 개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극적인 타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두 업체간 특허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민사 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이번 소송에서 가이드채널이 승소하게 될 경우 EPG(주)는 가이드채널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유명상표 모조기술도 단속

코카콜라와 나이키 디즈니 등 세계 최고의 브랜드 명성을 가진 기업들이 자사 브랜드 지키기에 공동으로 나섰다.

최근 유명 브랜드를 진짜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통되기 때문이다

디즈니는 Z맥스 디지털그래픽시스템스가 모조품 생산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유통시켰다며 이 회사 대표 릭 헤더릭 사장을 상표권 침해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지법에 고발했다.

디즈니는 이 회사가 디즈니의 로고인 미키마우스를 완벽하게 복사해 내는 프로그램과 복사된

로고를 상품에 부착하는 기계를 돌리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 행위는 '불법 복제품'의 판매·유통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법 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의 판매·유통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의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려받거나 CD롬을 통해 주문자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원하는 업체의 로고를 복사한 후 이것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면 본래 로고와 똑같은 이미지의 가짜 로고를 무제한 불법 복사할 수 있다.

Z맥스 디지털그래픽스의 피해자는 디즈니 외에도 나이키, 코카콜라, 폴로 랄프로렌, 리바이스 등을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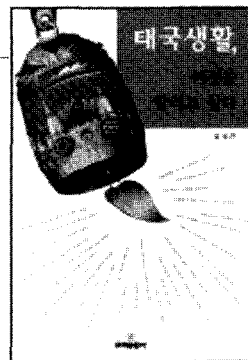
발특 2002/9

신간안내



창의적 아이디어 발명 발상법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지문어: 이태훈 / 도서출판 가리문

태국 초대 상무관을 지내며 겪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



태국생활
이것을 알고 싶다
지문어: 심성근
부리출판사